



# 4년 40억...KIA, 김선빈은 잡았다

안치홍과 내야 '꼬꼬마 키스톤' 콤비로 팬들 사랑 독차지  
주먹구구식 FA 협상 팬심에 상처...구멍난 내야는 속제로  
안치홍 이적 보상선수로 롯데 우완 투수 김현수 지목

'버티기 작전'을 벌인 KIA타이거즈가 김선빈(31)은 잡았다.  
KIA가 14일 내야수 김선빈과 계약 기간 4년, 계약금 16억원, 연봉 18억원, 옵션 6억원 등 총 40억원에 FA계약을 끝냈다.  
지난 2008년 화순고를 졸업하고 KIA에 입단한 김선빈은 11시즌 동안 1035경기에 출전해 3240타수 973안타(23홈런), 타율 0.300, 351타점, 502득점, 132도루를 기록했다.  
아무진 타격을 앞세워 주전 유격수로 자리를 잡은 김선빈은 1년 후배인 안치홍(30)과 '꼬꼬마 키스톤'을 구성하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다. 김선빈은 "KIA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기쁘고, 인정해주신 구단에 감사하다.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며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랜 시간 끝에 계약에 이른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운동에만 전념해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6일 프랜차이즈 스타 안치홍을 놓친 KIA는 김선빈을 잔류시키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팀 안팎으로 KIA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이번 FA 협상 과정에서 KIA는 과정, 결과 모두 프로답지 못했다.  
KIA는 "김선빈과 안치홍을 잡겠다"며 지난해



김선수

진 것이다. 경쟁과 논의를 통해 내야 재편이 이뤄져야 했지만, 앞서 구단발 여론전이 전개되는 모양새였다.  
시즌이 끝나고도 앞선 누적 성적보다는 2019시

준의 성적에 치중해 두 선수의 가치가 책정됐고, 10여 년을 함께 한 '가족'이 아닌 '가치가 떨어진 상품'이 됐다.  
동료이자 경쟁자인 두 사람이 나란히 FA 시장에 나오면서 총알이 넉넉지 않았던 KIA의 선택도 복잡했다.  
얼어붙은 FA 시장 상황에서 KIA는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KIA의 결과 속도 달랐다.  
기대와 달랐던 두 FA의 2019시즌 성적, 이병호의 은퇴, 박찬호의 깜짝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내야의 교동정리를 두고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다. 경쟁과 논의를 통해 내야 재편이 이뤄져야 했지만, 앞서 구단발 여론전이 전개되는 모양새였다.  
시즌이 끝나고도 앞선 누적 성적보다는 2019시

를 아우르던 안치홍의 역할에도 공백이 생겼다. 예정되었던 두 프랜차이즈 스타의 FA였지만 KIA는 최악의 전략으로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을 동시에 잃었다.  
올 시즌이 끝난 뒤에는 '에이스' 양현종과 '4번 타자' 최형우가 나란히 FA 신분이 된다.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탈피하지 못한 KIA의 올 시즌 성적과 2020시즌 이후 스토브리그 결과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이이다.  
한편 KIA는 안치홍의 이적 보상 선수로 투수 김현수(20)를 지명했다.  
장충고 출신의 우완 김현수는 2019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전체 28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유망주다. 지난 시즌에는 6경기에 출장, 1패 평균자책점 1.42를 기록했다.  
KIA는 "김현수는 뛰어난 운동 신경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성장세에 있는 투수다. 향후 마운드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LPGA 70번째 시즌 내일 개막

박인비·김세영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시즌이 16일 막을 올린다.  
올해 시즌 개막전은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120만달러)로 16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 스포츠 클럽 올랜드(파71·6645야드)에서 펼쳐진다.  
2020시즌은 LPGA 투어가 1950년 창설된 이후 70주년을 맞는 해다.  
시즌 첫 대회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는 2018년과 2019년 투어 대회 우승자들만 출전할 수 있으며 올해는 26명이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세계 랭킹 1, 2위인 고진영과 박성현은 출전하지 않지만 3위 넬리 코르다와 4위 다니엘라 강(이상 미국), 5위 김세영 등 상위권 선수들이 시즌 첫 승을

향해 출격한다.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 외에 박인비가 모습을 보인다.  
박인비는 최근 2월 말 태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대회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개막전부터 출전한다. 박인비가 1월에 시즌을 시작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으로 도쿄 올림픽 출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가 올해 도쿄 올림픽에서 2연패 기회를 얻으려면 세계 랭킹을 끌어올려야 한다.  
도쿄 올림픽에는 6월 랭킹 기준으로 15위 이내에만 한 나라에서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박인비는 13일 발표된 순위에서 16위로 한 계단 밀렸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지은희와 전인지, 허미정, 양희영까지 총 6명이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김학범호 무패행진 이어갈까



12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송클라 틴술라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한국과 이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이동준이 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U-23 축구대표팀 오늘 태국서 우즈벡과 조별리그 3차전

조별리그 '무패 통과'를 눈앞에 둔 김학범호가 '스피드'와 '체력'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한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 15분 태국 랑싯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을 펼친다.  
김학범 감독은 측면 자원 이동준과 엄원상을 위시한 공격진의 빠른 스피드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동준은 중국과 1차전에서 빠르게 적진으로 침투해 위치를 잡았고, 이는 후반 48분 극장골로 이어졌다. 이란과 2차전에서는 골키퍼에 맞고 뒤편을 날려 재빨리 뛰어들어 골로 연결시켰다.

또 엄원상은 'KTX', '엄살라'라는 별명에 걸맞게 빠른 스피드와 침투력이 장점인 선수다.  
선수들의 체력도 관건이다. 태국은 1월 평균 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만큼 체력과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  
3일 간격으로 몰아치는 경기 일정도 선수들을 지치게 한다.  
이란과 2차전에서 대기 선수 7명을 선발 명단에 넣으며 변칙 전략을 펼친 것도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승점 6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8강 진출이 확정돼 있다.

하지만 김학범호는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조별리그 '무패 행진'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2018년 AFC U-23 챔피언십에서 최종 우승한 우즈베키스탄은 올해도 1승 1무(승점 4) 무패 전적을 기록 중인 강팀이다.  
역대 전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9승 1무 2패로 앞서고 있으나, 2018년 AFC U-23 챔피언십 4강전에서 한국에 1-4 패배를 안겼던 만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경기에서 패배할 시 2위 자리가 위험해진다.  
조별리그 3위 이란(1무1패·승점 1)이 중국을 꺾고 승리할 경우 승점 4 동률이 돼 골득실 싸움을 벌여야 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한눈에 점쳐보는 '2020 K리그 성적'

테크니컬 리포트 발간  
지난해 데이터·지표 분석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9시즌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해 '2019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를 발간했다.  
2019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에는 2019시즌 K리그를 강타한 치열한 순위싸움, 강원FC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 외국인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 흥행을 이끈 대구의 비결 등을 조명한 데이터와 분석이 담겼다.  
특히 2019시즌부터 사용한 웨어러블장비를 통해 선수들의 피지컬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활용해 K리그내 가장 빠른 선수와 가장 많이 된 선수를 소개하는 항목도 새롭게 선보였다.  
2019시즌 '속도왕'은 K리그2 안양의 팔라시오스가 됐다. 그는 시속 35.8km의 속도를 기록하며 K리그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됐다. K리그1에서는 포항 원델손이 시속 35.1km의 속도를 과시했다.  
포항의 팔로세비치는 가장 부지런히 뛴 선수였

다. 경기 당 평균 12km를 뛴 그는 울산과의 최종전에서는 13km를 질주했다.  
리프트를 통해 593골이 터진 2019시즌의 득점 패턴, 득점을 막아내기 위한 수비 과정, 베스트11에 뽑힌 선수들의 주요 스맛, 구단별 시즌 통계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9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는 각 구단 및 관계사에 배포된다. K리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